

“기업 물려줄 사람 없는데”… 인수합병으로 승계

경영자 고령화 등 후계자 부재기업, 광주·전남 4만개 중기부, 특별법 추진…M&A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

광주·전남지역 4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후계자가 없어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경제관제강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실제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

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이다.

이 중 4만6000개사는 서울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 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에도 20만5262개 중소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6만306개이며 후계자 부재기업이 1만6946개다. 60세 이상 기업 중 후계자 부재기업의 비율은 28.1%다.

또 이를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로만

한정하면 광주에서는 1만2450개 중소기업 중 3888개가 후계자 부재기업인 상황이다.

전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남의 경우 29만4743개 중소기업 중에서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8만6595개이며 후계자 부재기업이 2만1129개다.

60세 이상 기업 중 후계자 부재기업의 비율은 24.4%다. 이들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로만 한정하면 전남의 경우 1만 9273개 중소기업 중 6019개가 후계자 부재기업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

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달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시험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을 이달 발의한다.

또,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를 기업승계지원센터(기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으로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

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교육 등)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

M&A 시장은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매수·매도 수요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가 직접 탐색·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특정 기업이 M&A를 추진한다는 정보 공개 시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의 우려가 있어 M&A 수요 파악이 곤란한 문제도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승계 목적인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 M&A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M&A 전문인력 보유, 자문·증개 실적, 재무상태 등)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 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기 위해 중소기업 계·전문가와 소통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rozyb@gmail.com

산업부, 수출바우처 기업 모집 899억원 규모…14대 분야 대상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펑성됐다. 기존 ‘산업바우처’ 사업에 더해 새롭게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이 추가됐다.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관세·비관세 장벽 등 최근 대두되는 통상 이슈에 기업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산업바우처(최대 1억원)보다 지원 한도가 크고 미국 관세 산정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기업들이 통상 환경 변화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바우처 참여 기업은 연 3회 모집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사랑의 전달식 행사에서 관계자들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소외계층 온정 나눔

22년째 기부 이어져… 난방비·희망선물 등 지원

㈜광주신세계가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후원했다.

신세계의 온정 배송은 지난 2003년부터 22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4일 광주 서구 광천동 백화점 정문 앞 광장에서 희망 산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이강 서구청장, 변정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이동훈 대표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희망 산타 사랑의 전달식은 광주신세계가 22년째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동안 주거 취약 계층의 환경개선을 위해 연탄구입 비용 등을 지원했다.

최근 들어 연탄 사용 가구가 줄어들면서 연탄 구입비 대신 난방비와 아동들이 원하는 희망선물을 준비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임직원들이 수혜자들을 위

한 손편지 20개를 직접 작성해 의미를 더 했다.

신세계는 이날 초록우산에 1000만원을 후원했고, 이는 서구 지역 내 주거 취약 계층 50세대를 위한 난방비 및 저소득층 20가구에 선물 구입비로 사용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신세계가 22년 동안 희망 산타 사랑의 전달식을 이어올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희망 산타들이 앞으로도 희망의 온기를 우리 지역에 전할 수 있도록 광주신세계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성탄절 특수…‘딸기 케이크 구하기’ 대란

광주신세계 입점 매장, 선착순 300명 판매 조기소진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가 맞물리며 ‘키친 205’의 케이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광주신세계 백화점 식당이 일대가 붐볐다.

이른 오전부터 몇몇 시민들이 수십 미터로 이어진 대기줄은 식품가게 한 바퀴 두를 정도였으며, 선착순으로 배부된 번호표가 조기 소진되는 등 이른바 ‘케이크 구하기 경쟁’이 벌어졌다.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는 케이크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 모임과 연말 파티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픈 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으며, 매장 외부를 넘어 식당가 전체를 둘러쌌다.

매년 연말마다 웨이팅 행렬을 일으키고 있는 ‘키친 205’는 선착순 번호표를 이날 오전 10시 30분(150개), 오후 4시(150개) 두차례 배부해 한정 수량 판매했다.

이날 매장을 찾은 손잔솔씨(32)는 “가족 모임에 가져갈 케이크를 사기 위해 10시에 나왔었다”며 “하지만 조금 늦어서 오전에 선착순 안에 들지 못했고 오후 줄에서 다시 대기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지하 1층에 입점한 ‘키친 205’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 번호표가 조기 소진됐다.

이어 “사실 이렇게까지해서 먹어야 하니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좋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 문배영씨(28)는 “함께 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광주 매장으로 왔는데 오히려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차라리 함평으로 갈 걸 그랬나 후회가 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씨는 “그래도 케이크를 들고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다. 선착순이다보니 케이크를 못받고 돌아가는 분들도 봤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rozyb@gmail.com

전라남도
Jeolla Namdo

세계 일류 에너지 강국의 실현!

전라남도와 KENTECH이 함께합니다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초전도 도체)
- 에너지 신소재 및 수소 등 연구기반 조성

한국에너지공대

- '22년 3월 개교
- 1,000명/에너지공학부 (대학원 600/학부 400)
- 에너지 6대 분야 종점연구

산학연 클러스터

- 대학 연구 직접(40만m²)
- 공동캠퍼스, 연구소, 산업벤처 zone
- 산학협력지원센터

차세대 그리드 육성

-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 차세대 전력망 국가전략 플랫폼
 - AI 전력 스타트업 창업 및 인재양성
- 에너지AI 직접 육성

KEN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